

1. '98, '99 통일정책관련 주요 연설문

(1)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시다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 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입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년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인간혁명으로부터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5대 혁명을 거쳐 인류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시대로부터 세계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올 한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몰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

다.

잘못은 지도자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생활의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애국심과 저력에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 후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착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심과 의욕에 충만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같이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말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준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회의체산업·영상산업·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지식정보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천3백여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열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への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입니다.

(2)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1998.3.1 김대중 대통령 제79주년 3·1절 기념사

남북한과 전세계에 계시는 7천만 동포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3·1절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 말엽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의 정점이요, 자랑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우리 국민은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40년동안 국내에서, 그리고 시베리아·만주·중국 본토에서 일제에 무장투쟁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식민지 역사에도 찾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9년만에 일어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 수립된 정부가 왕정복고를 지향한 정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인 ‘민국’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환 때까지 26년간 일본의 중국 침략 와중에서, 중국 대륙을 떠돌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의 이름을 수호한 이것 또한, 세계에서 예가 없는 놀라운 독립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위대한 조상들의 열과 업적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부터 79년 후인 지난 2월 25일 이 나라에는 다시 한번 국민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국민에 의해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룩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오늘이야말로 79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열들과 우리 국민들의 거룩한 정신이 최초로 실현된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대화합의 절정을 이룬 국민적 총참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국 13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좌우사상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 즉,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대서사시였고 대행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への 재도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 우리 국민의 자세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화합하고 동서가 화합하고 노소가 화합하고 남녀가 화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대화합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발현되고 우리들의 조상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국난극복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날 금융위기라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다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러한 대타협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심각한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러한 대타협을 이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생활의 고통을 무릅쓰고 대타협에 동참한 그 애국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통분담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으로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된 개혁을 실현

하고자 힘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개혁은 당장은 고통도 따르지만, 장차 여러분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정부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봉급의 동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없이는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국심과 성실성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지위안정, 생계보장, 이직자에 대한 사후대책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 정부 산하기관 어디에서고 이제는 지연과 학연 혹은 이해관계 등 부조리한 관계에 의한 왜곡된 인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양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조상들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일치협력했듯이 이 나라의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노·사·정 3자가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전위대로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애국심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아프게 느끼는 것은 선열들의 민족독립투쟁을 위한 희생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우리는 이산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상 그 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조상 앞에 민망하고 세계를 향해 부끄러운 일입니까. 1300년간을 통일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적대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변화는 남북 쌍방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 불가침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선 최소한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다시 한번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그들은 천추의 한을 품고 매일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의 협의 등 어떠한 방식도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병행해서 4자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정신을 간직합시다. 민족독립과 국민의 행복을 그토록 염원하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뜻을 기어이 받들고 실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시다.

이 정부는 여러분이 만든 정부입니다. 3·1선열들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만드는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저는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제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됩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선진국가로 만듭시다. 3·1애국 선열들의 얼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7천만 민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자유와 번영과 통일에의 믿음을 굳게 간직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3)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1998.8.15 제53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십수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주시민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혹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지

만, 용기 있는 국민에겐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저는 잠시도 쉴 틈없이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가 창설되어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의 4대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ASEM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은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국제경쟁력은 취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도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는 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저효율과 고비용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러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적으로 고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크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 정보혁명, 첨단기술혁명, 벤처기업혁명, 그리고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난극복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게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난의 시기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여러분이 명령한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적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기초로 그 실천 원리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여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의 건국운동」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운영의 6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상시키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국적인 지역대립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가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4천5백만 국민의 대통령이자 7천만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역의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의 국회제도도 크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도 공약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든 국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입니다.

둘째는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인만이 애국적 기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아래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체제를 바꾸기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듯 관치경제의 폐습을 일소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지향하는 경제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WTO체제는 앞으로 수년내에 경제적 국경을 없앨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친구삼아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좋은 이미지야말로 수출과 관광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주의야말로 「제2의 건국」 아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넷째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교육입국의 이상아래 오늘의 소모적인 교육을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꾸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덕·체 삼위일체의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실력있는 학생만을 졸업시키고, 학벌주의도 타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가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21세기의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이 곧 「제2의 건국」의 이상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에 바탕을 둔 신뢰는 「제2의 건국」의 기초입니다. 특히 저는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노사 쌍방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의 사명을 띠고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공정한 여건 속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말까지 쟁의가 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 10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실업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예외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공공취로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제2의 건국」이 추구하는 신노사문화 창조를 위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원칙, 즉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은 상호 교류협력을 실현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육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애태우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

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철학과 자유·정의·효율의 3대 원리 아래,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 세계주의와 지식기반 국가의 실현, 신노사문화의 창조와 남북간의 교류협력 촉진 등 앞서 말씀드린 6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제2의 건국」의 나아갈 길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국민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의 건국」의 기치 아래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난을 타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고생도 같이하고, 기쁨도 같이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합시다.

저는 일생을 국민 여러분 곁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40년 넘게 감내해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식과 문화의 시대라면, 조상으로부터 유별난 교육열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제2의 건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과 같이 ‘98년은 전면적인 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99년말까지는 IMF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참여하는 민족의 재도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민주대한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가 먼저 가신 애국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4) 1999년 대통령 신년사

1999.1.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9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힘차게 내딛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98년 한해동안 우리 모두는 파산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은 흔쾌히 참아내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모두는 환란을 이겨냈으며, 올해 부터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방

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밝은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경기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인내 그리고 이대로는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와 노력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8년은 절망과 불안속에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수 많은 시련속에서도 기어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우리 국민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을 기해서 이 땅에는 5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룩된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전례없는 국난의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열정과 각오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향한 공동의 깃발아래 국난을 힘차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경기심체로 인한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협력과 동참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모으기운동을 비롯하여 실직가정돕기운동, 수재민 구호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대개혁을 성공시켜 나라경제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금융·기업·공공부문 그리고 노동 등 모든 분야 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구국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환란에 처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낙관은 이르지만 시련의 한 해를 보내는 제야의 종소리는 이미 전국을 메아리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시련의 한 해를 국민과 같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국내는 물론 우방국가와의 관계에서 혼선을 거듭 하던 대북한 정책 역시 지난 10개월 동안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되었고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하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은 가장 적절한 대북한 정책으로서 국민과 세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잠수정 침투, 미사일 발사나 지하 의혹시설 구축 등 도발행위를 거듭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조심스럽게나마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국과 공조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올해에 나라경제를 다시 한 번 성장의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진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기억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우리는 ‘98년 이 해에는 경제개혁의 큰 테두리를 마무리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99년 중반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작할 것이며, 2000년부터는 도약의 단계로 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러한 예견을 지나친 낙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근면성, 우수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6.25의 폐허위에서도 일어섰듯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저력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저의 체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국민적 단결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을 수 없이 극복한 민족입니다. 우리 대에 와서 이를 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해서 빚더미의 나라를 후손에게 넘겨 준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기반국가를 이루어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노사공동운명의 새로운 노동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확고히 고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세계를 받아 들이고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열린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혁명기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 남고 승리하려면 국민적 단결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이기주의는 망국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을 합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인사를 편파적으로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도 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한 국민의 총체적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구국의 길로 나아가는 21세기를 향한 국민적 대전진인 것입니다. 국민운동이 정치를 초월하고 파당을 초월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실패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민관의 의식이 개혁되고 구국의 활동과 노력이 힘차게 일어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찬란한 성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같이 나아간다면, 20세기 끝을 향해 다가서는 1999년 이해에 우리는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찬란한 희망의 21세기가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제80주년 3·1절 기념사

1999.3.1

존경하고 사랑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1운동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위대한 선열들의 높은 뜻과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1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독립을 다시 찾자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에도 영향을 준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민중이 자발적으로 펼친 민중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는 조상들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다같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민족의 긍지를 만세에 빛나게 한 3·1운동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애국심으로 독립투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시베리아와 만주, 중국대륙을 종횡했던 40년간의 무장투쟁을 비롯하여, 해방되는 그 날까지 26년간 법통을 지켜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세계에 폄박받는 민족의 역사에 그 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과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민족은 국난에 처할수록 더욱 굳센 애국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오늘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환란이 닥치자 우리 국민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2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을 모았고, 일터마다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찬탄했던 우리의 국민적 저력으로 1년만에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에 따라 48억달러의 IMF의 빚을 이미 갚았고, 금년 내에도 77억달러를 더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환란 당시 38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지금 5백20억달러라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87억달러의 적자에서 1년사이에 3백99억달러의 놀라운 흑자로 돌아섰으며, 환율과 금리도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되었습니다. 물가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되었고, 금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는 작년 89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결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피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3·1구국정신의 위대한 구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금융·기업·공공부문과 노동부문 등 4대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오직 그길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수출이 되고, 수출이 잘 돼야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야 빚도 갚고 만일의 외환불안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대개혁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활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합심으로 이 개

력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이 입고 먹고,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네가지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나아가 일터를 늘리기 위해 고용능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정보산업,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 1백8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금년 말까지 1백50만명으로 감소시키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욱 안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제 대기업 중심의 은행대출이 작년 4/4분기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작년 4/4분기에 대기업 대출은 6조원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고르게 분담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경제가 궤도에 오르면, 노동자와 농민이나 서민, 중산층 등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재벌이나 특권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을, 저는 3·1 명령들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3대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 남북이 서로 화해·협력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영해 나가자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미 냉전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소 두 나라는 화해를 했고, 그 중에 소비에트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만 동족간에 전쟁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냉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산주의자의 침략이나 지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북한 7천만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최소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같이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민족 전체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에 책임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후, 남북관계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북한 간첩선 출몰과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4자회담 재개와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미·북 협상, 7년만에 재개된 장성급회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으로 이미 3만명의 사람이 다녀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북한 헌법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일부 도입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의심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전쟁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안보태세를 철저히 강화해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능히 격파할 수 있는 준비위에 이러한 화해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단호한 자세를,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석방된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갈망하는 국군포로나 억류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천만 민족 모두의 아픔인 이산가족들이 하루속히 상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 등지의 산야에서 싸우다 귀중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던 선열들의 애국심을 감사와 존경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열과 행동을 본받아 우리 앞에 닥쳐있는 경제적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부조리, 부정부패, 지역주의, 이기주의 등을 청산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제2의 건국」운동이 힘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3·1정신으로 구현된 우리 선조들의 열을 굳게 지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선진대열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선열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구국의 큰 길을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의 동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6)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나갑시다

1999.8.15 제5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4주년을 맞는 날이자 새천년을 앞둔 20세기의 마지막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먼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명복을 빕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저는 지난 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사를 돌아보며 아울러 새천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한마디로 좌절과 불굴의 헌신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의 위정자들은 세계의 큰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근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혁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국민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치욕스러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순간부터 해방의 날까지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 식민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해방 후 뜻하지 않은 국토분단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8일,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국민의 투표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정권교체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체제의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이후의 국난인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조선왕조 말엽과 같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또다시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온갖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IMF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감소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에서의 도전을 초전에 저지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다.

그러나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내각책임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정치는 지금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져서 국회가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합의했던 자민련과 상의 끝에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분할 구도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입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서 선거부정의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정당법을 고쳐서 정당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에서 본회의 중심의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정심의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정치가 토론과 상호협력의 장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대로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강행통과도 표결저지도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인권국가을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고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습니다. 저는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밝고 바른 법치를 더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법제도를 이루고자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논의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당이 되겠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 할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고 갈 정당이 되겠습니다.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여서 폭넓고 튼튼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경제번영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주력해서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개혁을 더한층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재벌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며, 변칙상속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재벌에 대해서도 투명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제2의 기아사태」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인 농업과 섬유, 전자,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지식을 활용한 농어민의 성공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반동안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임기 안에는 세계 일류의

경제발전과 건전한 경제체제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0,0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2002년까지는 1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실업자를 백만명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서 지난 수십년간의 채무국에서 벗어나 머지 않아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되는 순채권국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끗한 나라,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정부패의 척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습니다.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도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겠습니다.

농어가 부채의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민의 연대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입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 명에게는 학비를 무상지원을 해주고, 대학생 30만 명에게는 장기 저리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탁아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제도를 고쳐서, 2002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해방지 등 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화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여건과 스포츠 레저시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합니다.

저는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안보를 위해서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남북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가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전세계가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세기입니다.

국토의 넓이나 돈과 자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창의력이 국가 운명을 가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는 한국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교육 전통과 오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도 중국화되지 않았던 문화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의 주체가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새천년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지식기반 사회, 문화창조의 기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과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새천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역사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IMF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너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희망속에 이 다리를 건너가실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정의를 투철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안보와 화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잘해야 나라가 일어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제2의 건국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